

2020년 10월 25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주일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3편 5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5절)

◎ 찬 송 / 93장(통93) 예수는 나의 힘이요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에베소서 6장 13~17절

13.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 말씀선포 / 전신갑주 13 - 왜 성령의 검인가?

왜 전신 갑주의 요소 중에 전투의 무기로 검만 포함되었을까요? 실제로 로마 군인에게 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격무기는 검이 아니라 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투의 무기인 말씀으로 창은 그 속성상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심령을 찌릅니다. 창도 사람을 찌릅니다. 그런데 검으로 찔린 것과 창으로 찔린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특히 검으로 찔리는 경우에 검의 찌름은 예리하고, 아프게 베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면, 창으로 찌르는 것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창으로 찌르는 것은 강력한 파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로마군사의 창에 옆구리를 찔리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원수에 의하여 철저히 그리고 무참히 훼손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으로서의 용도는 다릅니다. 성령의 검의 용도는 예리하게 베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러한 검의 용례를 두 군데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읽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절에서 말씀의 역할은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말씀은 살아 있고 활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주관하는 분이 바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말씀의 예리함이 “좌우에 날선 검”으로 비유되었습니다. 날선 검이란 날이 시퍼렇게 서 있어 매우 예리하게 사물을 베어내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셋째, 말씀의 예리함은 사람의 내면의 핵심 부분 중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찌르고 쪼갰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성령의 검이 역사하는 모습에 대한 생생한 묘사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넷째, 검과 같은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하는 능력은 헬라어로 “끄리띠끄스”인데, 이는 많은 것들 중에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꼭 집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은 “까르디아”로 이것은 내면의 중심이란 뜻이고, 생각과 뜻은 각각 “엔튀메시스”와 “엔노이아”인데 이들은 사고에 익숙한 사람의 체계적이며 복잡한 구조의 생각 혹은 생각하는 활동을 지성과 이성을 의미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런 모든 과정까지도 드러내어 성도의 잘못된 생각까지도 바꾸시고 바로 잡으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례는 누가복음 2장 35절에 기록된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사가랴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보면서 앞으로 경험할 크나큰 아픔을 예언하면, 이를 통하여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는 성부 하나님의 아픔과 온 세상의 아픔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 칼에 찔린 아픔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에 말씀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말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수난 예고까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의 검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령의 검이 사용될 때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남을 봅니다.

첫째, 성령의 검은 믿음의 방패가 온 군대를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치시킨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6절을 보면,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소위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에 의해서 부흥의 축진을 맛보기도 했지만, 이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한국교회에 준 피해 또한 큼니다. 한 개인이 성령의 능력을 빙자한 독단적인 해석은 말씀에 거짓의 탈을 씌워 자기를 합리화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은 바른 신학 교육을 통해 훈련 받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천년이 넘은 교회가 계속적으로 견지해 온 성경의 해석법은 성령께서 지도하신 것이지, 인간이 창안한 것이 아니며 이성과 학문의 발달로 된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분명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고 신앙전수의 건강한 통로로 이어져 온 성경 해석법을 부정하는 주장은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른 신학과 온전한 말씀해석으로, 한 교회, 한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에서 성령의 검이 사용될 때 많은 성도들은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분별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령께서 주시는 일치와 평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의 검은 마귀의 간계를 물리치며 사탄의 진영을 초토화시키는 힘이 있지만, 그렇다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일상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를 위해 뽑은 성령의 검의 방향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 나의 정욕이고, 내 못난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잡아 십자가에 처형하려 한다면, 오히려 마귀의 간계에 쉽게 넘어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말씀을 검으로 나 자신을 더욱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며 끊어야 할 것들을 끊고, 세워야 할 것을 바로 세워 이 시대 살아있는 성도, 참 생명을 누리고 또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가족함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191장(통427) 예수가 거느리시니

◎ 폐 회 / 주기도문